

세계 공수병(광견병)의 날, 해외여행 시 공수병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청, 9월 28일 <세계 공수병의 날>을 맞아 공수병 예방수칙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17회 세계 공수병의 날(9.28.)>을 맞이하여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한편, 공수병(광견병)* 위험 국가로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수병 바이러스(*Lyssavirus rabies*)에 의한 감염병, 사람에게엔 공수병, 동물에는 광견병이라 지칭

<세계 공수병의 날>은 미국에 본부를 둔 GARC(Global Alliance for Rabies Control)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수병 백신을 개발한 루이 파스퇴르의 기일인 9월 28일을 세계 공수병의 날로 지정하여 2007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세계 공수병의 날>은 공수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 조직, 이해관계자를 단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수병은 공수병 바이러스(*Lassavirus rabies*) 감염에 의해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주로 떠돌이 개, 너구리, 오소리, 여우 등 야생동물에 물렸을 경우 감염되며, 특히 99% 이상이 광견병에 걸린 개로부터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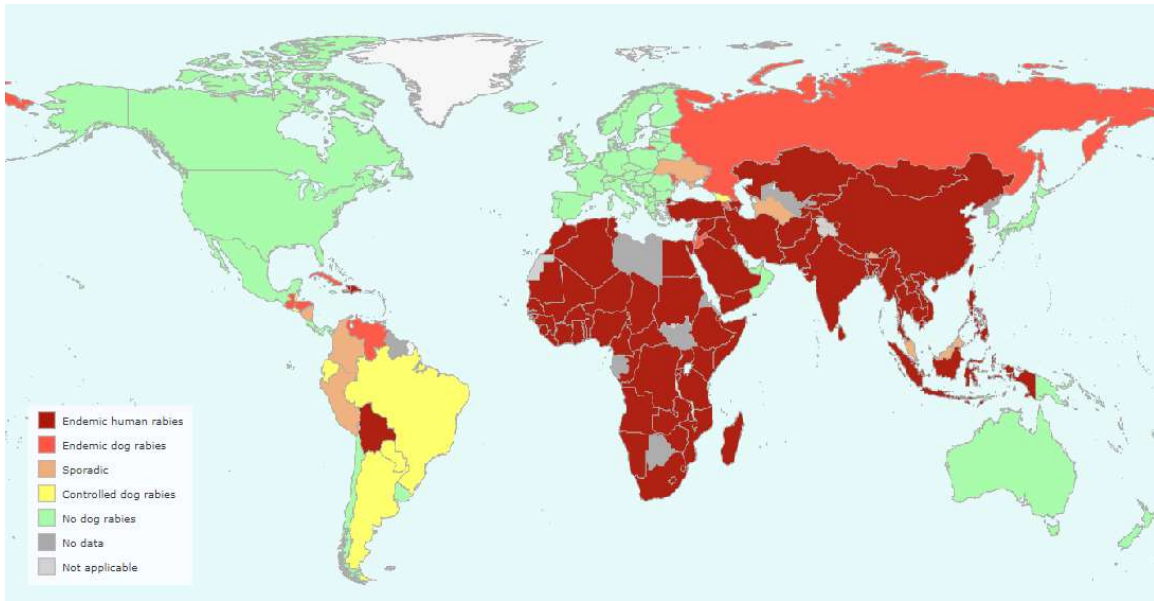
*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누리집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공수병 환자 발생은 없으며, 동물에서도 2014년 이후 광견병 환축 발생 보고는 없으나, 북한과 접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서 감염이 의심*되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출처: Mass vaccination has led to the eliminatin of rabies since 2014 in South Korea. (2017.), Yang D.K.등. *Clin Exp Vaccine Res* 6(2), 111-119.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95%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여행 시에는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공수병 예방접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https://apps.who.int/neglected_diseases/ntddata/rabies/rabies.html]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세계 공수병의 날>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수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법을 알리는 것인 만큼 기념일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당부하였다.

공수병 예방수칙

- ①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 ② 모르는 개가 다가올 경우, 큰 소리를 내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마세요.
- ③ 공격당할 경우에는 가방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고 고개를 숙여 목과 귀를 보호해야 해요.
- ④ 물림이나 핏자국 등 물리적 접촉이 있을 때는 즉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15분간 씻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백신 접종 등 의료적 처치를 받으세요.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공수병은 치명률이 매우 높으며, 국외에서는 아직까지도 발생이 많은 만큼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붙임> 1. 공수병(Rabies) 개요
 2. 동물 광견병 비발생 국가(지역) 현황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원	043-719-7160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숙	043-719-7164
		담당자	연구사	조수경	043-719-7165

붙임 1

공수병(Rabies) 개요

* 출처: 2023년 인수공통감염병관리지침

구분	내용
정의	· 공수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 · 사람의 경우 공수병, 동물의 경우 광견병으로 지칭
질병 분류	· 제3급 법정감염병 · ICD-10 A82
병원체	· 공수병 바이러스(Lyssavirus rabies)
병원소	· 1차적 병원소는 공수병 바이러스에 노출된 야생동물로 너구리, 오소리, 여우, 스컹크, 코요테, 박쥐 등이 대표적임 - 이들이 직접 사람과 접촉하여 감염을 시키거나 이들이 개, 고양이, 소 등 가축을 감염시키고 감염 가축이 다시 인간을 물어 감염시킴
감염 경로	· 대부분은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핏물 교상 부위에 바이러스가 함유된 타액이 침투하여 감염됨 ·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집단 서식하는 동굴 내에서 연무질(에어로졸)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 · 감염된 동물의 타액 또는 조직을 다룰 때 타액이 점막(눈, 코, 입)에 묻거나 상처를 통해 전파 · 사람 간 전파는 각막, 간, 신장, 폐 이식 등을 통한 사례가 보고됨
잠복기	· 평균 2~3개월(1주~1년의 범위를 가짐) · 물린 곳이 중추신경과 가까울수록 잠복기는 더 짧음
주요 증상 및 임상경과	· 발병초기(전구기): 2-10일 정도 지속, 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등의 비특이 증상을 보임 · 발병후기(급성 신경질환, 혼수, 사망기): 불면증, 불안, 혼돈, 부분적인 마비, 환청, 흥분, 타액, 땀, 눈물 등 과다분비, 연하곤란, 물을 두려워하고, 수일(평균 7~10일) 이내에 사망 · 합병증: 부적절항이노호르몬증후군(SIADH), 요붕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부정맥, 위장관 출혈, 장 마비, 혈소판 감소 등
진단	· 검체(타액)에서 Lyssavirus rabies 분리 · 검체(목 피부조직, 뇌조직)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혈청, 뇌척수액)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타액, 목 피부조직, 뇌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사율	·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100%
치료	· 수분, 전해질 보충 등 보존적 치료
환자 관리	· 환자 관리 - 격리 필요 없음 - 환자 상처 및 화농성 분비물과 감염성 조직 및 그 분비물(눈물, 타액 등)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 - 공수병 백신 접종 후 24시간 이내 헌혈 금지, 치료 종료 후 1개월간 헌혈 금지 · 접촉자 관리 -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접촉 주의 - 각막, 간, 신장, 폐 이식, 성관계, 환자 치료 과정에서의 감염 사례가 드물게 있음
예방	1) 동물교상 후 치료(노출 후 치료) · 상처 세척: 교상 후 즉시 비눗물로 씻고, 적어도 15분 동안 물로 세척 후 환부에 포비돈-요오드 용액을 도포 · 면역글로블린과 백신 투여: 교상 동물의 상태에 따라 결정 2) 동물교상 전 예방 접종 · 공수병 백신(PVRV) 0.5ml를 총 2회(0일, 7일) 삼각근에 근육주사 ※ 수의사나 위험지역 장기체류 등은 3회, 고농도 바이러스 실험실 취급자는 2회 시행 후 6개월마다 항체검사 시행

붙임 2

동물 광견병 비발생 국가(지역) 현황

구 분	국 가(지 역)
아메리카 (9)	괌, 과들루프섬, 마르티니크,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루바, 자메이카, 케이맨 제도, 하와이
아시아 (9)	몰디브, 바레인,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일본, 쿠웨이트, 홍콩
아프리카 (7)	레위니옹섬,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셜, 지부티, 카보베르데, 코모로
오세아니아 (11)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윌리스프투나,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호주
유럽 (23)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핀란드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23.7.3.)